

연구논문

## 상징적 복잡적응계로서의 사회적 실천: 여성학방법론에의 함의\*

조주현\*\*

### 〈국문초록〉

이 글은 상징적 복잡적응계로서의 사회적 실천을 다루는 실천이론이 여성학방법론과 페미니스트 정치에 함의하는 바를 논의한다. 첫째, 사회적 실천은 공동체 내에서 사회구성원들의 행위와 그에 대한 구성원들의 상호 주관적인 규범적 판단들을 통해 생성, 유지, 변화, 또는 소멸되는 일련의 행동 패턴들을 말한다. 이러한 사회적 실천을 다루는 ‘실천이론’은 사회적 실천이론, 철학적 실용주의, 그리고 복잡적응계 이론에 기반한다. 필자는 다양한 실천이론 유형들의 간략한 분류와 검토를 통해 이들 이론과 필자가 제안하는 ‘실천이론’과의 차이를 부각시킨다. 둘째, 여성학방법론의 실천적 전환이 서구에서 발전해온 페미니스트 이론들의 수용과 그에 대한 탈식민적 비판들에 대해 어떤 함의를 갖는지 분석하며 여성학방법론의 실천적 전환이 그러한 수용과 비판에 대한 좋은 처방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셋째, 여성학방법론의 실천적 전환이 함의하는 바를 페미니스트 정치와 관련하여 검토한 후 지난 수십 년간 효율적이었던 젠더정치를 보완/확장할 수 있는 페미니스트 정치적 전략으로 아고니즘 정치를 도입할 것을 주장한다.

**주제어:** 신자유주의, 여성학방법론, 페미니스트 정치, 실천이론, 아고니즘 정치

\* 이 논문은 2016년 12월 8일 - 9일에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가 주최한 국제학술대회 〈지구화 시대 페미니스트 정치학의 미래〉에서 발표한 원고(“동아시아 여성학을 위한 실천이론의 방법론적 함의”)를 이론적 논의에 초점을 맞춰 수정한 것입니다. 세심한 논평으로 원고를 수정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심사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계명대학교 여성학과 교수(juhyun@kmu.ac.kr)

© 2017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 1. 문제제기: 사회적 실천, 실천이론, 아고니즘 정치

이 글의 서론으로 필자는 먼저 이 글에서 사용하는 개념들 중에 여성학 이론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혼동의 여지가 있는 용어들을 설명한 후, 필자가 ‘실천이론’이라는 새로운 이론을 제안하게 된 동기를 간략히 개진하려고 한다.

상징적 복잡적응계로서의 사회적 실천(social practices)은 일반적으로 제도, 규범, 조직, 관습 등으로 불리는 다양한 사회적 구조물들 중에서도 안정성과 적응적 변화가능성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징적 계를 말한다. 상징적 복잡적응계로서의 사회적 실천의 안정성은 그 실천의 수행(performance)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 각 구성원이 내리는 규범적 판단(normative judgment)에 의해 유지된다.<sup>1)</sup> 여기서 규범적 판단이란 각 구성원이 자신의 규범적 판단 대상인 행위에 대해 그 행위가 속해있는 사회적 실천에서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기준에서 보았을 때 그 행위가 적절한지/부적절한지 평가한다는 의미다. 이러한 규범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순간은 그 행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순간일 뿐만 아니라 판단의 기준 자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순간이기도 하다. 즉, 사회적 실천에서 규범적 판단은 평가 대상인 행위의 적응적 변화뿐만 아니라 판단기준의 적응적 변화까지 유도하는 유일한 기제가 된다. 따라서 상징적 복잡적응계로서의 사회적 실천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천이라 부르는 수많은 사회적 현상들 중에서도 한편으로 그 실천의 구조적 영속성 또는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적응적 변화를 통

---

1) ‘규범적 판단’이라는 말은 주어진 실천에서 내재적으로(implicitly) 주어진 기준이나 목표에 따라, 행위자의 수행이 맞는지/틀리는지(correct/incorrect), 적절한지/부적절한지(appropriate/inappropriate), 합리적인지/비합리적인지(rational/irrational), 또는 옳은지/그른지(right/wrong) 등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여기서 사용하는 규범적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도덕적 의미를 갖지 않는다.

해 그 실천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으로 오직 구성원들의 규범적 판단능력만을 필요로 하는 상징적 계를 지칭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상징적 복잡적응계로서의 사회적 실천을 줄여서 '사회적 실천'이라 부르고 이에 대한 필자의 이론을 줄여서 '실천이론'이라 부르도록 한다.

필자가 이 글에서 일상적인 용어로 사용되는 실천을 혼란과 오해의 여지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가져와서 '실천이론'으로 명명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페미니즘 이론에서 실천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의 가장 중요한 맥락이 실천을 통해 사회적 변화를 끌어내려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통상 페미니즘 이론과 비판이론은 인간의 행위성을 젠더 불평등을 포함한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중요한 저항의 원천으로 보고 행위성의 발현을 실천의 출발점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규율권력의 작동으로 행위성의 발현이 근본적으로 차단되는 경우 저항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의 문제는 푸코의 권력이론에 대한 비판뿐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 특히 가부장제를 여성 종속의 원인으로 지적해온 페미니스트 정치이론의 가장 중요한 논제였다 (Allen, 2007). 필자는 페미니즘 이론과 비판이론이 봉착한 이러한 난관이 인간의 행위성과 자유에 대한 상대적으로 간결한 이론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고 그 대안으로 사회적 실천을 통해 사회변화를 추구하는 '실천이론'을 제안하려고 한다.

일반적으로 명백한 불평등의 경우 이론적 간결함은 집단적 저항을 위한 결집에 효율적일 수 있으며 실제로 정체성의 정치가 성공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도 상당부분 이러한 이론적 간결함에 기인한다. 이러한 정체성의 정치 중 특히 젠더정치에 기반을 둔 한국의 여성운동이 지난 수십 년간 이론 법적, 제도적 성과는 놀라운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성공적인 여성운동의 젠더정치 시기와 상당부분 겹치면서 급속하게 진행된 신자유주의적 사회재편은 비록 왜곡된 형태이긴 하지만 다양한 선택 공간들을 확장시키면서 개인의 창의적 삶에 대한 욕구를 동력으로 하는

후기 근대적 풍경을 한국사회에 드리우고 있고, 이제 페미니스트 정치적 전략의 다양성을 요구하고 있다(홍찬숙, 2015). 필자는 이러한 후기 근대의 다양성 모색이 그동안 젠더정치로 이론 성과를 약화시키거나 퇴행적 변화로 전락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페미니스트 정치이론의 확장 과 함께 무엇보다도 여성의 행위성 개념의 정교화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한다. 실천이론은 여성학방법론의 재편과 함께 후기 근대에 요구되는 다양한 페미니스트 정치적 전략을 확장하는데 중요한 출발점 역할을 할 수 있다.

한편 실천이론은 페미니스트 정치학과 같은 일반적 의미의 실천학문에 더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실천이론의 가장 중요한 뿌리가 실용주의(pragmatism)인데 실용주의는 인간의 과학적, 윤리적, 그리고 정치적 행위들을 사회적 실천 개념을 통해 통합적으로 설명하려하기 때문이다.<sup>2)</sup> 서양철학에서 데카르트 이후 재현론(representationalism)을 극복하려는 노력의 결과물인 실천이론이 지식에 대한 실천이론 뿐만 아니라 정치와 윤리에 대한 실천이론을 동시에 제시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통합적 설명노력 때문이다. 필자는 이러한 실천이론의 정치적 구현을 ‘아고니즘 정치(agonistic politics)’라는 다소 생소한 용어로 명명하려고 한다.<sup>3)</sup> 아고니즘 정치는 아고니즘(agonism), 아고니즘 민주주의(agonistic democracy), 또는 아고니즘적 다원주의(agonistic pluralism) 등으로 불리지만 필자는 이 글에서 숙의 정치(deliberative politics)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아고니즘 정치를 사용한다.<sup>4)</sup>

숙의 정치를 대표하는 롤즈나 하버마스가 궁극적 합의 도출을 목표로

---

2) 특히 듀이(Dewey)와 로티(Rorty)가 실천이론과 그 정치적 전략을 상호 밀접한 형태로 제시하는 작업을 해왔다(MacGilvray, 2004; Misak, 2000).

3) 아고니즘 정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학자들 중에 무페(Mouffe, 2005)나 호니그(Honig, 2009) 같은 페미니스트 정치학자들이 있다는 점도 필자의 용어선택에 영향을 주었다.

4) 아고니즘 정치를 정치적 전략으로 옹호하는 대표적인 학자들로 푸코, 라클라우, 무페, 코넨리(Connolly), 제릴리(Zerilli), 호니그(Honig) 등이 있다.

자신의 사적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합리적 숙의(deliberation)가 이루어지는 공적 공간(public space)을 가정하는데 비해, 아고니즘 정치이론가들은 그러한 숙의 정치는 사회적 실천의 급격한 변혁이나 새로운 사회적 실천의 창조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아고니즘 정치이론가들은 정치가 고대 그리스의 경연장(agon)에서 이루어지던 경연처럼, 상대방의 생소할 수도 있는 의견을 존중하되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반박하려 애쓰고 다른 한편 자신의 정당한 주장을 굽히지 않고 정확하게 제시하되 상대방의 반박에 정확하게 응답하는 과정을 이어감으로써, 그 결과가 반드시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논박 자체가 사회적 실천이 더 효율적으로 변화하거나 급격한 변형의 실마리가 될 수 있게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아고니즘 정치이론가들은 새로운 사회적 실천의 창조적 순간은 숙의 정치가 가정하는 공적 이성(public reason)을 통해서는 실현 불가능하며, 아렌트의 세계-구축(world-building)의 순간이나 제틀리의 단정적 순간(predicative moment)이 가능한 확장된 경연장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고 믿는다. 아고니즘 정치이론가들에게 공적 공간이나 공적 이성을 강조하는 숙의 정치는 정체성의 정치에 의존하는 근대적 정치 전략에의 향수에서 숙의 정치가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징표로 간주될 뿐이다(제틀리, 2016; 조주현, 2016: 97에서 재인용).

반면에 필자가 지향하는 아고니즘 정치는 이러한 기존의 아고니즘 정치에 정체성의 정치나 숙의 정치를 특수한 경우로 포함시킨 확장된 정치 전략으로서의 아고니즘 정치다. 아고니즘 정치의 성공적 작동여부는 그 공동체의 역사적, 문화적 유산이 결정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구성원들의 실천적 수행능력이 달려있다는 점 또한 분명하다. 즉, 아고니즘 정치의 성공적 작동여부는 구성원들이 세계-구축적 판단을 통해 새로운 실천을 창조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와 창의성을 보이느냐에 달려있다. 따라서 필자가 지향하는 아고니즘 정치는 구성원들의 실천적 수행, 특히 규범적 판단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특징을 보인다. 푸코는 구성원들의 이러한 수행능력을 ‘존재의 미학’ 혹은 ‘윤리의 기술’을 통해 관리할 수 있다고 보았지만, 이러한 수행능력의 향상은 인간의 창의성의 핵심이면서도 궁극적으로는 그 인간이 속한 공동체의 다양한 사회적 실천들의 유연성에 의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실천이론과 그 정치적 구현인 아고니즘 정치의 핵심은 형식적인 규칙이나 제도에만 의존하지 않고 유연한 사회적 실천들이 주는 적극적 자유를 통해 확장된 삶의 형식 혹은 문화적 공간을 구축하면서도 그것이 자유방임적이거나 상대주의로 환원되지 않게 하는 행위성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조주현, 2016: 98에서 재인용).

한국적 후기 근대에서 최근 젊은이들은 젠더 평등에 대해 퇴행적 시도들을 보이고 있는데, 필자는 이것을 단순히 신자유주의에 내몰린 일부 젊은이들의 일탈로만 규정하기보다는 그동안의 여성운동과 그 여성운동이 사용해온 전반적인 전략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배은경, 2016a; 임옥희, 2011; 조한혜정 외, 2016). 또한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단지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설득력 없는 불만을 쏟아내는 소극적인 대응에 머무는 것일 수 없으며 여성학방법론 전반의 방향을 완전히 새롭게 재조정하는 적극적 대응으로 나아가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자는 새로운 형태의 여성학방법론을 모색할 수 있는 한 가지 가능한 방향을 제시해보려고 하는데, 필자의 이 같은 시도는 단지 여성학방법론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현재 사회과학방법론 전반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방향 조정과도 수렴되는 것이다. 새로운 형태의 여성학방법론은 지금까지 한국의 여성학방법론이 시달려왔던 바 서구의 방법론과 이론들에 과도하게 의존한다는 비난에 대해서도 새로운 해석과 해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5절로 구성된다. 1절은 사회적 실천, 실천이론, 그리고 아고니즘 정치를 소개하고 필자가 제안하는 ‘실천이론’이 후기 근대 한국 여성학

에 요구되는 새로운 형태의 방법론의 구성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다. 2절은 사회적 실천을 다루는 실천이론을 소개한다. 사회적 실천은 공동체 내에서 사회구성원들 각각의 행위와 그에 대한 구성원들의 상호주관적인 규범적 판단들을 통해 생성, 유지, 변화, 또는 소멸되는 일련의 행동 패턴들을 말한다. 필자가 제안하는 실천이론은 상호 연관되지만 개념적으로는 서로 전혀 다른 세 가지 이론에 기반한다. 그 세 가지 이론은 (1) 사회적 실천이론, (2) 독일 관념론과 현상학, 그리고 최근에는 인지과학과 진화심리학의 영향을 받고 있는 철학적 실용주의, (3)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잡적응계 이론이다. 필자는 2절에서 특히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실천이론 유형들의 간략한 분류와 검토를 통해 필자가 제안하는 실천이론과 그 이론들 간의 차이를 부각시키려고 한다. 3절은 여성학방법론의 실천적 전환이 함의하는 바를 사회과학방법론 전반과 관련해서 검토한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3절은 궁극적으로 새로운 여성학방법론이 서구의 여성학방법론과 어떤 관계에 놓이게 되는지를 논의한다. 4절은 여성학방법론의 실천적 전환이 함의하는 바를 페미니스트 정치와 관련해서 검토한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페미니스트 정치에 대한 실천적 이해는 아고니즘 정치적 전환으로 구현된다는 점을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5절은 이 글에서 제시한 논의를 간략하게 요약한다.

## 2. 상징적 복잡적응계로서의 사회적 실천과 실천이론

### 1) 실천이론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터너(S. Turner)에 따르면, 실천은 “20세기 철학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들이 결집되는 지점”이다. 터너는 “20세기 철학의 가장 대표적인 업적은

비록 그 업적이 정확하게 실천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실천을 논의한 것이라고 간주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지적했다(Turner, 1994a: 1). 실제로 실천 개념을 분명하게 설명해내려는 시도를 해본 연구자라면 누구나 자신의 설명이 마치 ‘장님 코끼리만지기’ 우화가 묘사한 상황처럼 결국 부분적 사실만을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곤 한다.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실천을 다양한 이름으로 불러왔다. 그 중 일부만 제시해보면 아버투스, 규범, 전통, 삶의 형식, 세계관, 패러다임, 이데올로기, 암묵적 지식, 틀(framework), 삶의 기술(coping skills), 노하우, 그리고 전제(presuppositions)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각각의 개념들은 각기 그 개념에 핵심적인 실천의 어떤 특징들을 강조하기 위해 고안된 것들이다. 그러나 다양한 학문분과에 속해있는 수많은 연구자들이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특징들을 포괄하는 실천이론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그러한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연구자들이 최소한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많은 개념들을 포괄할 수 있는 포괄적 실천이론을 구축하려하기보다 오히려 모든 실천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기본구조를 찾아내는 것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실천이론에 대한 잠정적 정의를 내리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실천이론은 한 사회가 작동하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다양한 사회제도들이 다시 그 사회제도 안에 반드시 사회적 실천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사회적 실천이란 구성원 각자의 행위와 그에 대한 구성원들 간의 상호 주관적인 규범적 판단을 통해 유지되는, 안정적이면서도 적응적으로 조절해나가는 일련의 행동 패턴들을 말한다(Rouse, 2007). 한편 실천처럼 정의내리기 어려운 개념은 실천이 아닌 것들과 대비시키는 방식을 통해 그 특징을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 같은 방식으로 필자가 추구하는 실천이론의 경우도 실천이 아닌 것들과의 간략한 대비를 통해 현재 사용되고 있는 다른 실천이론들과의 차이를 분

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추구하는 실천이론은 사회적 실천이론, 독일 현상학의 영향 아래 최근에는 인지과학 및 진화심리학을 통해 수정을 거친 철학적 실용주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잡적응계 이론 이상 세 가지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sup>5)</sup>

먼저 사회적 실천이론은 행위자와 사회구조 사이에 작동하는 재귀성을 강조하며 그런 점에서 사회적 실천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행위 패턴들이라고 할 수 있는 패션, 관습, 사회적 규범, 그리고 과학적 실천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실천들을 포괄한다. 사회적 실천이론가들은 예컨대 경제학이나 정치학에서 사용되는 합리적 선택이론이나 게임이론의 경우처럼 형식적 이론화를 할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는다. 사회적 실천의 이러한 느슨함 때문에 사회적 실천이론가들은 실천 개념을 훨씬 더 광범위한 사회적 현상들에도 [예컨대 마르셀 모스(M. Mauss)가 “미국식 걸음걸이”를 묘사했던 데서 볼 수 있듯이 훨씬 덜 안정적이면서 지속성도 약한 사회적 현상들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된다(Turner, 1994b).

반면에 철학적 실용주의는 사회적 실천이론과 달리 주로 언어적 실천을 설명하기 위해 구성된 이론이다.<sup>6)</sup> 철학적 실용주의자들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20세기 이후의 신실용주의자들(neopragmatists)은] 어떻게 언어가 언어적 실천을 통해 작동하는지에 주목한다. 철학적 실용주의는 이후 단순히 인식론적 연구에 머물지 않고 도덕적 실천 연구를 거쳐 일반적인

---

5) 물론 이 세 요소들은 분명히 서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 사회적 실천이론과 철학적 실용주의 양쪽 모두에 속하는 이론이나 연구자들의 경우, 어느 한 쪽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범주화하는 것은 문제적일 수 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사회적 실천이론에 속하는 연구자들이나 철학적 실용주의에 속하는 연구자들은 빈번히 상호 영향을 주고 받아왔다.

6) 아래의 논의에서 볼 수 있듯이 철학적 실천이론은 필자가 구상하는 실천이론의 중심을 이루지만, 다양한 실용주의 계열 철학자들이 20세기에 완성한 실천이론의 논거를 체계적으로 요약하는 것은 필자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다. 필자는 이 이론들 중 중요한 결론만 재해석하여 제시하면서 논의를 끌어가려고 한다.

사회적 실천 연구로 그 통찰력을 확장시켰다. 철학적 실용주의는 한 사회가 안정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게 하는 기본 기제로 사회적 실천을 지목하였는데, 그러한 논의의 기원에는 칸트와 헤겔의 상상력이 놓여있다(Brandom, 1994). 철학적 실용주의는 [혹은 더 간략히 말하자면 실용주의는 미국의 실용주의와 관련된 다양한 현대 철학의 조류를 포괄하는 용어로서, 맥도웰(J. McDowell), 브랜덤(R. Brandom), 호그랜드(J. Haugeland) 등과 같은 분석철학자들의 노력에 의해 [고전적 실용주의자들의 작업이 그러했듯이] 칸트와 헤겔이 대변하는 독일 관념론의 규범적 전통을 이어가는 것으로 재해석됐다(Brandom, 2011). 한편 드레이퍼스(H. Dreyfus)는 실천에 대한 철학적 실용주의의 핵심 부분이 후설, 하이데거, 메를로-퐁티로 대변되는 현상학적 접근을 통해 보완될 수 있다고 보았다(Dreyfus, 1992: 231-84). 최근 들어 이들의 현상학적 통찰은 인지과학 및 신경과학, 그리고 진화심리학의 발달을 통해 실증과 수정을 거치면서 좀 더 구체적인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Tomasello, 2014). 이처럼 철학적 실용주의를 구성하는 미국 실용주의, 철학적 현상학, 그리고 인지과학 및 신경과학과 진화심리학은 서로 엇갈리면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데, 이 요소들이 사회적 실천이론 및 복잡적응계 이론과 함께 필자가 추구하는 ‘실천이론’의 핵심을 구성하는 이론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실천이론만큼은 아니지만 철학적 실용주의도 그 내부는 서로 이질적이면서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브랜덤은 철학적 실용주의를 정식화하여 실천의 작동 방식을 형식화하는 작업을 도모하고 있는데, 브랜덤의 이러한 작업은 경제학의 합리적 선택이론이나 게임이론과 비견할만한 가능성을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 브랜덤에 따르면, 사회적 실천은 그 실천에 속하는 행위와 그 행위를 규범에 따라 평가하는 행위들로 구성되어 있다. 실천에 속하는 구성원의 자격은 그 실천에 속하는 행위와 평가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 사회는 핵심 실천들

로 구성되어있으며, 합리적 인간이란 이러한 핵심 실천들을 구성하는 행위와 평가행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실천에 속하는 구성원의 규범적 지위는 다른 구성원들이 그 구성원을 ‘인정(recognition)’해 주는가의 규범적 태도(normative attitudes)에 달려있다.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구성원은 규범을 따를 ‘책임(responsibility)’을 지게 되며, 인정을 통해 그 구성원에게 책임을 지우는 다른 구성원들의 ‘권위(authority)’는 그 구성원이 인정해줄 때만 구속성을 가진다. 이렇게 서로 인정받고 인정하는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 대칭적인 책임과 권위의 규범적 의존은 주관성을 넘어서는 규범적 지위를 획득하게 되며 그것으로 충분히 사회적 실천을 구성할 수 있게 된다. 브랜덤의 이러한 사회적 실천 모델은 모든 종류의 실천에 내재하고 있는 책임과 권위, 또는 종속과 행위성의 양 측면을 상호인정(reciprocal recognition)의 사회적 모델로 통합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Brandon, 2013: 8-10).

철학적 실용주의를 단순한 실천모델로 형식화하려는 브랜덤의 작업 중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언어적 실천을 “의무적 점수기록(deontic scorekeeping)” 모델로 포착하려는 시도다(Brandon, 1994: 180-198). 이 모델에서 각 구성원은 자신과 다른 구성원들의 헌신<sup>7)</sup>과 자격<sup>8)</sup>으로 이루어진 점수의 기록을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즉 주어진 헌신과 자격에서 실질적 추론으로 도출되는 헌신과 자격을 기록하고, 평가 대상인 수행자 자신이 인정한 헌신과 무모순성 여부를 확인하며, 모순성이 포착되는 경우 해명을 요구하

7) “헌신(commitment)”이라는 용어는 적절하게 번역하기 매우 어려운 것 중 하나다. 일반적으로 누가 어떤 주장(statement, claim)에 commit 한다는 말은 그가 그 주장을 하고, 필요하다면 그 주장에 근거를 제공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약(公約)”이라고 번역하는 학자도 있다.

8) “자격(entitlement)”이라는 용어도 commitment 보다는 낫지만 적절한 용어가 없다는 점에서는 비슷하다. 누가 어떤 주장을 할 자격이 있다(entitled to)는 말은 그가 그런 주장을 할 만한 적절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자가 판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권리”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기도 하는 과정을 자신이 파악한 평가규범에 따라 수행한다. 각 구성원은 이렇게 매 순간마다 기록된 구성원들의 점수를 모아서 “점수 함수(score function)”를 구성할 수 있다. 점수 함수는 자신을 포함한 구성원 각자의 행위에 대한 매 순간의 평가와 그 평가점수들의 축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각 행위의 의미는 그 실천의 평가규범에 따라 결정되고 그 결과 구성원들에 대한 점수가 특정한 방식으로 변하게 된다. 이것은 각 행위의 의미와 그것의 평가규범 둘 다가 이 점수 함수에 고스란히 담겨있다는 것을 뜻한다. 즉 점수 함수는 각 행위의 의미가 그 순간의 구성원들이 부여하는 점수에 의해 결정되는 과정과, 각 구성원에게 어떠한 헌신과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결정하는 평가규범을 바꾸는 과정, 둘 다를 관할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각 구성원들의 행위는 평가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모든 구성원들의 행위에 대한 평가기준인 평가규범에 영향을 미치는 재귀적 과정이 완성된다(Brandom, 1994: 180-186).

브랜덤은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해 내리는 구성원들의 평가는 과거의 행위들에 대한 과거 구성원들의 평가와 그 평가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는 과거의 평가 전체로부터 구성원들 각각이 읽어낸 평가규범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이때 각 구성원이 어떻게 과거의 규범을 읽어내는가는 그 구성원이 속한 사회의 사회적 실천들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는 삶의 형식(forms of life)에 의해 결정된다(Brandom, 2002). 따라서 브랜덤에게 있어 인간의 합리성은 이러한 규범이나 전통과 같은 과거의 사회적 실천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어떤 “합리적 이유(reasons)”에 따라 자신이 재구성한 규범이나 전통에 포함시킬지 끊임없이 판단하는 것에서 발견된다. 그리고 이 “합리적 이유”에는 어떤 평가가 그 실천을 더 “효율적”인 것으로 만들지에 대한 고려 등이 포함된다. 한편 이렇게 각 개인이 내린 평가나 해석은 다시 다음 평가자에 의해 엄밀한 심사를 거치게 되고, 다음 평가자는 이전 평가자가 내린 평가나 해석을 자신의 새로운 규범적 해석에 포함시

킬지 여부를 결정한다. 물론 각 개인이 내린 평가는 다음 평가자에 의해 잘못될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필자가 추구하는 실천이론의 세 번째 구성요소로 복잡적응계 이론이 있다. 복잡적응계는 수많은 단순한 요소들로 구성되며 이 내부의 단순한 구성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조절적으로 안정성을 유지하거나 외부조건에 따라 진화함으로써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는 특징을 보이는데 복잡적응계의 이러한 특성을 자기-조직(self-organization)이라고 부른다. 물론 복잡적응계도 급작스러운 구조적 변화를 헤쳐 나갈 수 있긴 하지만 복잡적응계는 기본적으로 자기 정체성의 어떤 형식을 반드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복잡적응계는 그 구성요소들이나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 패턴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 특징적 현상을 창발(emergence)이라고 부른다. 복잡적응계 이론들의 목표는 무엇보다도 어떻게 그리고 어떤 조건 하에서 아무런 중앙집중적 통제기관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분산된 방식으로 자기-조직과 그에 따른 창발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데 있다 (Mitchell, 2009).

사회적 실천은 사회구성원들이 구성요소가 되고 사회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이 그 체계를 유지해주는 복잡적응계의 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sup>9)</sup> 사회적 실천 외에 다른 복잡적응계 사례들로 새매, 개미집단, 고속도로 교통, 면역체계, 뇌, 그리고 대부분의 생물학적 계가 포함된다.<sup>10)</sup> 복잡적응계 이론들은 먼저 자기-조직화 행동의 창발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구조만

9) 이러한 사회적 실천들의 일부는 루만(N. Luhmann)이 체계화한 체계이론의 하위체계(subsystems)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하위체계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한 사회가 그 체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10) 필자는 사회적 실천을 '상징적 복잡적응계'라고 명명했는데, 왜냐하면 '복잡적응계'는 물질적 요소들로 구성된 일반적 계를 뜻할 뿐이지만 사회적 실천은 그 구성요소인 인간의 상징적 조작 능력에 의해 유지, 변화되는 계이기 때문이다.

남겨둔 채 체계를 극도로 단순화시킨 후 그 체계에 대한 수학적 모델을 구축하는 작업을 시작한다. 그리고 그 수학적 모델에 근거한 계산이나 컴퓨터 모의실험을 통해 복잡적응계의 행동을 간파하려고 한다. 복잡적응계 이론의 연구 결과들은 이처럼 단순한 구성요소들로 이루어진 복잡적응계가 스스로 어떠한 중앙 집중적 조정자도 없이 다양한 외부적 조건들 아래서 자기-조직화를 통해 안정성과 효율성을 유지해나가는 다양한 사례들을 보여준다. 그런데 다른 복잡적응계들과 달리 사회적 실천은 실천의 구성요소들인 사회구성원들 각자가 그 자체로 복잡적응계인 2차 복잡적응계이다. 2차 복잡적응계인 사회적 실천을 구성하는 그 자체로 복잡적응계인 사회구성원들은 다른 복잡적응계의 구성요소들처럼 단순히 실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동하지 않고 자기-이익 추구를 포함한 복잡한 행동들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을 설파했던 홉스 이래 철학자들과 사회과학자들 사이에서 체계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손상시키지 않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체계의 구성요소인 사회구성원들 각자의 행동에 설정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되게 된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 2) 핵심이론으로서의 실천이론

한편 이상과 같은 세 가지 이론으로부터 새로운 ‘실천이론’을 구성하려는 필자의 시도가 단순한 나열에 그치지 않고 이론들 간의 정합성을 보이는 체계적 이론이 되기 위해서는 필자가 제시하는 ‘실천이론’과 그것의 출발점 역할을 하는 사회적 실천이론 및 철학적 실용주의와의 관계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할 것이다. 필자가 추구하는 실천이론은 긴티스가 말한 사회과학의 핵심이론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론이다. 긴티스는 다양한 사회과학들이 인간행위를 공통의 연구 대상으로 삼으면서도 각 분과학문

이 서로 전혀 다른 모델들을 기반으로 연구하는 현재의 상황은 분명 기이한 현상이라고 지적하면서 인간 행위에 대한 공통이론 구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Gintis, 2007).<sup>11)</sup> 긴티스 자신은 진화론적 게임이론이 합리적 행위자모델에 대한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핵심이론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다양한 반론에서 볼 수 있듯이(Gintis, 2007: 16-45) 진화론적 게임이론은 이전의 합리적 행위자모델과 게임이론의 중요한 결함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과학의 중심 역할을 담당해야 할 사회학에 핵심이론이 “부재”함으로써 인간 행위에 대한 공통이론을 구성하는데 사회학이 가장 결정적인 장애물이었다는 그의 주장은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회학자들은 긴티스의 주장을 경제학자의 편협한 또는 제국주의적 시각에서 비롯된 터무니없는 왜곡이라고 평가할지 모른다(Gintis and Helbing, 2015: 61-210). 그러나 이에 대한 긴티스의 재반론(Gintis, 2015: 211-237) 외에도 필자는 사회학자들의 이러한 반응이 근대 사회학 태동의 사회적, 지적 배경에서 시작된 과학적 방법론에 대한 중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지적한 적이 있다(조주현, 2010: 90-91). 과학적 실천에 대한 쿤(2013)의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은 과학적 실천과 그 결과물인 이론의 엄밀성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물리학 방법론에 대한 카트라이트(Cartwright, 1999) 연구의 함의는 근대물리학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새로운 과학적 실천의 도입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물리학적 연구 대상의 단순성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즉, 물리학이 다른 학문들의 부러움을 사게 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극단적으로 단순화된 계의 행동에 대한 엄밀한 수학적 이론과 그 실험적 증명이라는 결과물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사실은 사회과학,

11) 긴티스는 사회과학을 인간의 행위에 대한 관심사를 공유한다는 의미에서 행동과학(behavioral sciences)이라고 부를 것을 제안했다.

특히 사회학의 방법론에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즉, 사회학적 계는 물리학적 계에 비해 말할 수 없이 복잡하기 때문에 설령 자연과학적 실천만큼 엄밀한 사회과학적 실천을 적용시킨다 하더라도 엄밀한 이론적 결과물을 기대할 수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과학적 연구대상을 물리학의 경우처럼 단순화시키는 전략을 취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할 경우 이론의 설명력은 급격히 약화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근대 사회학자들은 당시 자신들에게 기대됐던 역할을 충족시키려는 욕구에서 연구대상을 극단적으로 단순화시킨 사회적인 것의 사회학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이 난관을 해결하려했고 그 결과 핵심이론인 행위자 모델을 체계적인 형태로 구성하는 작업은 등한시됐다.

거시적 변수로 [즉 사회적인 것으로] 사회 현상을 포착하는 이론은 사회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재구성돼야 하는데 이 재구성 작업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려면 사회 변화의 원인인 사회적 실천의 동력학이 [즉 실천을 구성하고 수행하는 행위자 모델이] 확립돼 있어야 한다. 필자는 바로 이 점이 핵심이론의 필요성에 대한 긴티스의 주장이 의미를 갖게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한다. 필자가 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실천이론은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긴티스가 제안한 진화론적 게임이론에 기반을 둔 합리적 행위자모델의 개정판이 가지는 약점도 해결할 수 있다. 예컨대 긴티스의 진화론적 행위자 모델의 약점은 행위자의 선택을 결정하는 믿음(beliefs), 선호(preferences),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구속조건들(social constraints)을 결정하는 사회적 실천의 완전한 동력학적 이론이 부재하다는 데 있다. 진화론적 게임이론에는 사회적 실천의 변화과정에서 개인이 하는 역할에 대한 이론이 매우 빈약하게 나타난다. 개인은 혼용 과정을 통해 익힌 사회적 규범을 주로 수동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머물고 사회적 규범이 구성되고 변화되는 과정에 개인의 판단이 작용하는 과정은 생략된다. 진화론적 게임이론이 개인의 선택, 혹은 행위성을 강조하

는 이론으로 알려진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상황은 진화론적 게임이론의 매우 특이한 맹점이 아닐 수 없다.

필자가 진화론적인 게임이론의 문제점을 가장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이론으로 철학적 실용주의를 주목하는 이유는 철학적 실용주의가 개인의 행위성 발현의 순간을 정확하게 포착했기 때문이다. 필자는 언어적 실천 과정에서 진술과 같은 언어적 수행의 순간에 다른 개인(들)이 그 수행에 대해 내리는 규범적 판단이 [즉 그 수행이 주어진 상황에서 적절한 수행이었는지, 그 수행이 수행자의 지금까지의 수행들과 가지는 추론적 관계는 적절한 것인지, 수행자와 평가자가 수행과 평가 과정에서 동원한 평가 기준은 여전히 적절한 것인지, 그리고 적절하지 않다면 어떤 식으로 그 평가기준이 수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행위성이 발현되는 순간이며, 사회적 실천은 이러한 규범적 판단을 통해 안정성과 조정적 변화가능성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다고 본 것이 철학적 실용주의의 가장 중요한 통찰이라고 판단한다.

필자는 철학적 실용주의가 인간의 인지적, 윤리적, 정치적 행위를 실천의 [혹은 상징적 복잡적응계의] 구성 요소로 이해하는 과정에서 사회과학적 핵심이론의 구성에 필요한 이론적 기반을 제시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사회적 실천이론가들이 사회 현상들을 설명할 때 실천의 다양한 형태에 주목하느라 그 실천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규범적 판단과 판단기준 사이의 동력학에 대한 간결하고 핵심적인 이론 구성을 등한시 한 것과 대비되는 점이다. 사회적 실천이론과 철학적 실용주의의 이러한 차이는 두 이론이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의식을 가졌기 때문이다. 전자는 사회학과 인류학의 많은 사례들을 통해 이미 다양한 사회적 실천들을 접했기 때문에 실천이 하나의 상징적 복잡적응계로 작동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그 결과 실천의 작동방식에 대한 통일된 이론을 구성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반면, 후자는 문법과 같은 형식적 규칙으로 규정할 수 없는 언

어적 실천이라는 느슨하고 창의적으로 변화하는 체계가 어떻게 인간들이 서로 정확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하고 나아가 엄밀한 과학적 지식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실천의 작동 가능성은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연구대상이 된 것이다.

사회적 실천이론과 철학적 실용주의의 이러한 차이는 필자가 구성하려는 핵심이론에서 전혀 다른 역할로 나타난다. 즉 철학적 실용주의는 모든 실천의 핵심을 실천의 수행자인 구성원의 행위와 규범적 판단으로 요약한다. 각 구성원의 행위는 각 순간에 적절한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에 의해 결정되고 다른 구성원들은 그 행위가 적절한 것인지를 판단한다. 중요한 것은 이 판단의 순간이 그 행위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각 구성원이 훈육과정에서 습득한 판단기준에 대한 평가의 순간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철학적 실용주의의 통찰은 이처럼 얼핏 보기에 상식적인 동력학이 실천을 구성, 유지, 강화, 혹은 변형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데 있다. 실천은 그 외의 특별한 형식적 규칙이나 문법을 필요로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천이 적응적 변화를 통해 그 효율성을 유지하는데 있어 그러한 규칙이나 문법은 오히려 치명적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실천의 이러한 특징 때문에 실천은 항상 실패할 수 있다. 즉 비효율성의 누적으로 실천은 소멸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 실천이 안정성을 통한 효율성과 조정적 변화가능성을 통한 창의성을 동시에 유지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 여부는 수행자의 규범적 판단 능력에 달려 있게 된다. 수행자의 규범적 판단은 대부분 본능적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은 그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삶의 기술이기도 하다. 판단기준에 대한 재평가의 필요성 역시 대개는 본능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판단기준의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는가는 각 수행자의 새로운 시도에 대한 다른 수행자들의 호응 정도에 달려있게 된다.

철학적 실용주의의 통찰은 바로 이러한 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는데 있다. 결국 실천의 안정성과 창의성 간의 절충이 어떻게 최적화된 형태로 이루어지는가는 바로 수행자의 능력 수준에 달려 있게 된다.

### 3. 여성학방법론의 실천적 전환: 실천이론의 방법론적 함의

한국 여성학의 경우 필자가 제안하는 실천적 전환은 더욱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다른 나라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사회과학도 그동안 서구의 사회과학방법론과 한국의 사회과학방법론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문제를 가지고 씨름해왔다. 이 문제는 특히 경제학이나 심리학과 달리 (자연)과학적 실험이나 수학적 접근방법에 덜 경도되어 있는 사회학, 인류학, 정치학의 영역에서 학문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논의돼왔다. 그리고 여기에는 한국의 여성학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수십 년간 활동해온 상당수의 한국 페미니스트 연구자들이 서구의 대학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은 연구자들인데 이러한 상황은 서구이론을 한국여성들의 경험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졌다.

필자는 이 문제가 탈식민주의 연구가 지적해온 역사적, 정치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의 이론적, 방법론적 특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포함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결정적인 차이를 드러내려는 다양한 시도들은 딜타이(W. Dilthey)와 베버(M. Weber) 이후 지속되어왔다. 이것은 오랜 역사를 가진 인문사회과학이 근대 들어 자연과학의 놀라운 성공에 훨씬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한 끊임없는 시도들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쿤(2013)이 설명했듯이 자연과학의 과학적 방법이 과학적 실천으로 더 잘 설명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리고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에서 각기 실행되는 과학적 실천들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이며 다만 각각이 관심을 보이는 체계의 복잡성의 차이일 뿐인 것이라면, 어째서 서구 국가들에서 발전했거나 선호되는 이론들에 부분적으로 혹은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 자연과학과 공학에서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데 비해 인문사회과학에서는 지속되는 것일까?

필자는 이러한 대조적 반응이 나오게 된 주요 이유가 대부분의 서구 인문사회과학자들이 발전시킨 이론 형태의 특이성 때문이라고 믿는다. 그러한 이론의 전형적인 예가 바로 라투르가 '사회적인 것의 사회학'이라고 부른 형태의 사회이론들이다. 이 이론들은 사회현상을 거시-사회적 개념들인 계급, 이데올로기, 노동, 사회규범, 그리고 공식적인 사회제도와 기능들로 직조된 망을 통해 설명하려고 한다. 따라서 그 개념들이 설명하고 있는 바로 그 사회구조를 창조하고, 유지하고, 변화시키고, 때로는 소멸시키는 각각의 개별행위자들의 기여는 일반적으로 무시되며, '행위자'는 대체로 변치 않는 형태로 이 구조들과 직면한 상태에서 과잉 사회화된 방식으로 일상을 살아나가는 것으로 설정된다(Latour, 2005). 라투르에 따르면 근대의 사회학자들이 사회적인 것의 사회학을 기본이론으로 삼을 것을 주장했던 이유는, 근대적 기획에 필요한 이론적 가이드를 긴급히 요구하는 정부 관료들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회학이 그 수요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잘못 판단했기 때문이다. 타르드가 설파했듯이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에서 출발하는 미시이론으로는 정책적 조언을 원하는 정부 관료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사회적인 것의 사회학에서 출발하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사회적인 것의 사회학과 같이 거시적인 개념들을 주 분석도구로 활용하는 사회과학방법론은 그 개념들의 선택과 구성 과정에서 그 개념들

이 그로부터 형성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을 반영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특히 성공적인 사회과학 이론일수록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따라서 한국의 여성학방법론과 나아가 한국의 사회과학방법론이 그 이론이 구성된 지적 환경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은 사회적인 것의 사회학의 출발점인 핵심이론 단계에서 서구의 지적 환경에 고유한 특징을 감별해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필자는 2절에서 제시한 실천이론이 이러한 작업을 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임을 주장하려고 한다. 이제 이 주장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해보자. 예컨대 경제학의 경우를 보면 경제학이 엄밀 과학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지만 적어도 모든 선진국의 경제정책은 공통된 경제학 이론에 기반을 두고 운용된다. 또한 경제학은 각국의 경제 환경에 따라 연구주제는 다를 수 있지만 공통된 연구방법론을 활용한다. 따라서 경제학이 수학적 통계방법에 과도하게 의존한다는 비판은 제기될 수 있지만 그 폐해가 한국 경제학의 경우 더 심하다는 주장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여성학, 정치학, 사회학의 경우와 대비되는 현상인데, 필자는 그 근본원인이 경제학에는 핵심이론이 있는 반면 여성학, 정치학, 사회학에는 핵심이론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예컨대 경제학의 합리적 행위자모델은 개인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과 무관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처럼 이론이 그 이론의 형성 환경과 무관할 경우에 게임이론이 수학적 형태로 표현될 수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이론의 형식화 작업 가능성은 높아지게 된다.

그렇다면 사회학의 핵심이론 구성 작업은 어떤 상황일까? 사회적인 것의 사회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 중 한 예로 가핑클의 사회적 실천이론을 들 수 있다. 가핑클은, 행위자 행동의 재귀적 성격을 사회질서 유지의 장애물로 인식하여 그 효과나 영향력을 축소하고 그 대신 규범의 내재화를 통해 사회질서 문제를 해결하려했던 파슨스의 사회행위이론이

직면한 딜레마에서 벗어나 오히려 행위의 재귀적 성격이 사회질서 유지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했다(Heritage, 1984). 행위의 재귀적 성격을 소위 “구조와 행위성의 문제”(Archer, 1996)나 “미시-거시의 연결문제”(Alexander, 1987; Knorr-Cetina and Cicourel, 1981)로 보는 사회적 실천이론의 이러한 관점은 철학적 실용주의를 중심으로 한 필자의 ‘실천이론’에 영향을 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든스를 비롯한 사회적 실천이론가들의 저작에서 이러한 행위의 재귀적 성격이 체계적인 핵심이론의 형태로 제시된 적은 없다. 반면에 필자의 실천이론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철학적 실용주의의 경우 행위의 재귀적 성격은 수행자가 내리는 규범적 판단행위 과정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이 규범적 판단행위의 모델은 브랜덤의 의무적 점수기록 모델에서 가장 체계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2절에서 간략히 소개한 브랜덤의 모델은 기존의 사회적인 것의 사회학이나 전통적 세계관의 철학과 달리 서구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전통이 제거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문화적 전통과 환경에 고유한 문제들을 분석할 수 있는 거시이론 구성의 출발점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달리 표현하자면 사회적인 것의 사회학과 같은 거시이론과 실천이론은 각기 접근하는 층위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경합하는 접근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단순화시켜서 말한다면 실천이론은 거시이론을 구성하는 도구적 역할을 하는 것인 반면에 거시이론은 주어진 사회적 환경과 문제에 실천이론을 적용시켜 얻어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각각의 거시이론들은 사회라는 복잡 적응계가 가지는 다양한 특징들을 각각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그 관점에서 잘 드러나는 특징들을 포착하고, 주어진 현상의 전체 구조는 다양한 거시이론들이 제공하는 해석들의 정합적 통합으로 나타난다. 이때 거시이론들 간의 정합성은 이론들 간에 서로 모순되거나 경합하는 지점에서 핵심이론의 관점으로 다시 돌아가 두 상반된 해석들 간의 정합성이 어떻게 회복되는가를 보여줌으로써 확보된다. 핵심이론의 이러한 역할은 기존의 사회과

학 이론과 실천이론의 관계에 대한 오해를 해소시켜준다. 즉, 실천이론은 예컨대 사회학의 경우 베버를 비롯한 고전사회학 이론들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배치하고 재해석할 수 있는 통합적 관점을 제공하여 그 이론의 효력과 적용 범위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 사회과학방법론을 구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사전 작업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필자는 외국의 사회문화적 지형에서 발전된 이론들을 무분별하게 수입, 적용한다는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회과학방법론을 구축하는데 있어 실천이론이 가장 전망 있는 후보군 중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주장했다. 요약하자면, (1) 핵심이론을 구성할 때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최대한 형식화한 모델을 [즉 시대적, 지역적, 문화적 조건과 최대한 무관한 모델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2) 개개인의 수행과 규범적 판단에 의해 변화되는 실천과 그러한 실천들로 구성된 문화가 규범적 판단기준을 구성하는 과정을 최대한 형식적인 형태로 담아낸 실천이론이 바로 그 핵심이론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3)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핵심이론이 한국 사회과학의 출발점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동시에 기존의 서구 사회과학의 어떤 부분을 선택하고 어떻게 변화시켜야 한국의 사회적 현상들을 왜곡시키지 않고 분석하는 이론을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우리가 목표로 하는 여성학방법론의 재정립을 위해서는 사회과학 방법론에서 실천이론이 갖는 의미뿐만 아니라 여성학방법론의 정치적 특징을 [즉, 우리는 역사적으로 가장 오랜 기간 억압돼온 가장 거대한 집단의 해방을 목표로 하기에 여성학방법론은 다른 어떤 인문사회과학보다 페미니스트 정치와 본질적으로 연관돼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고려해야 한다. 다음 절에서는 실천이론이 이러한 여성학방법론과 페미니스트 정치의 문제에 어떤 근본적으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것이 후

기 근대의 페미니스트 정치적 전략에 어떤 중요한 함의를 지니는지 분석하도록 하겠다.

#### 4. 페미니스트 정치의 실천적 전환: 아고니즘 정치

실천이론은 데카르트 이후 서구 인식론을 지배해온 재현론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형성된 이론으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실천이론의 가장 중요한 기원이자 20세기 후반 이후 뚜렷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철학적 실용주의는 실재에 대한 재현론적 접근법을 사회적 실천의 역할로 확장하여 구성원 간의 평가를 통한 적응적 조정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전환시켰다. 인식론적 관점에서 실천적 관점으로 확장된 인간 행위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인간의 인지적, 윤리적, 정치적 행위를 동시에 통일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특징을 보인다(Menand, 2001). 그리고 실천이론의 이러한 통합적 이해방식을 상호 밀접하게 연관돼있는 여성학방법론과 페미니스트 정치에 적용시켜보면 여성학방법론의 실천적 전환이 페미니스트 정치적 전략에 가지는 중요한 함의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필자는 이 절에서 여성학방법론의 실천적 이해와 동시에 일어나는 페미니스트 정치의 실천적 이해는 페미니스트 정치의 아고니즘 정치적 전환으로 구현된다는 점을 주장하려고 한다.

한국의 여성 운동은 1990년대 이후 정부가 양성평등에 관한 일련의 정책들을 법제화하도록 성공적으로 정부를 설득할 수 있었다. 양성평등정책의 성공적인 법제화는 한국이 지난 수십 년에 걸쳐 이룩한 경이로운 경제 발전과 견줄 만한 것이었다. 이러한 성과는 한국의 여성운동이 지난 반세기에 걸쳐 일치단결된 모습으로 보여준 엄청난 노력 없이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시기 페미니스트 정치의 주요 전략은 대부분의 동아시아 국가들과 서구 선진국가들이 그러했듯이 젠더정치에 기반한 것이다(신상숙, 2012; 배은경, 2016b). 젠더정치 역시 상호교차성 개념과 같은 정교한 개념들과 함께 실천적 전환이 주장하는 전략들과 중복될 수 있는 일련의 전략들을 포괄하고 있다.<sup>12)</sup> 그러나 페미니스트 정치로서 젠더정치가 보여줄 수 있는 핵심적인 효과는 무엇보다도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삶 안에서 여성들이 겪고 있는 억압적 상황을 강조하는데 있다. 젠더정치는 그러한 억압적 상황에 저항하고 궁극적으로는 집합적 투쟁을 통해 그 상황으로부터 여성들을 해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페미니스트 정치적 전략으로서 젠더정치의 효과는 얼마나 강력하게 여성들을 단일한 정치적 범주로 묶을 수 있느냐에 달려있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젠더정치가 성공하게 되면 단일한 정치적 범주로서의 여성은 더욱 강화된다. 반면에 페미니스트 정치의 실천적 전환이 함의하는 것은, 다양한 형태의 불의와 불평등을 보이는 무질서한 사회적 실천들에 대해 저항할 수도 있고 변화시킬 수도 있고 소멸시켜버릴 수도 있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정치적 전략들의 스펙트럼 안에 젠더정치를 위치시킨 후 다시 새로운 전략들을 창조하는 것이다.

근대를 거쳐 오면서 서구의 선진국가들은 다양한 형태의 불의와 불평등을 성공적으로 제거해왔고 고통받는 집단들의 조건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었다. 대부분의 동아시아 국가들 역시 불의와 불평등을 제거하는 데 있어 성공적인 경제발전과 함께 단기간에 서구의 선진국가들과 어느 정도 유사한 정도의 성취를 이룰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성공을 이루는데 정체성의 정치에 기반한 정치적 전략들이 중심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정체성의 정치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여성운동의 주요 전략적

12) 이 점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논의로는 Alcoff(2000)를 참조하라.

도구가 되는 것일까? 나아가 정체성의 정치는 여전히 불평등과 불의에 대해 발언하고 저항해야 하는 피억압집단의 주요 전략적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일까? “후기 근대”라는 [개념적으로 모호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이 새로운 사회 환경의 근본적으로 변화된 성격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이 “후기 근대”라는 용어를 빌려서 얘기하자면 그에 대한 대답은 부정적인 것으로 보인다(Beck and Beck-Gernsheim, 2002).

바우만(2009)이 묘사한 것처럼 후기 근대는 원래 다소 비관적인 미래를 표현하기 위한 용어이고 실제로 후기 근대의 삶은 진정 암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여성운동의 경우 이 암울함은 지난 수십 년간 여성운동이 그토록 열심히 노력하여 얻은 성과가 후기 근대의 신여성성과 포스트페미니즘의 형식 아래 무화될 위기에 놓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Gill and Scharff, 2011). 그러나 다른 한편 후기 근대는 좀 더 효율적인 사회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sup>13)</sup> 예컨대 코넨리(W. Connolly)처럼 아고니즘 정치를 제안하는 사람들은 후기 근대에는 가장 노골적인 불평등과 불의는 제거되거나 적어도 그 사회의 성숙한 시민들에 의해 비웃음의 대상이 되며, 아고니즘 정치와 아고니즘 정치가 지원하는 다원주의의 수용으로 열리게 된 자유와 창의성을 통해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시대가 된다고 말한다(Connolly, 2002). 그리고 여기에는 지식경제와 IT산업이 주도하는 시장경제 시대에 고도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된 상황도 포함된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페미니스트 정치는 효율성이나 합리성 개념에 기대어 젠더평등을 주장하는 것을 피해왔다(Folbre, 1993). 사회적 실천의 효율성이란 것이 [특히 그것이 경제적 효율성일 경우] 그 사회의 지배문화를

13) 여기서 효율성이란 경제학이나 경영학에서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좁은 의미의 효율성만을 뜻하는 게 아니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의미에서의 일반적인 효율성을 말한다.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다른 실천들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는 것임을 고려한다면 이것은 일견 타당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새로운 실천들이 효율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은 것으로 쉽게 매도되곤 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필자는 여성학방법론의 실천적 전환과 페미니스트 정치의 아고니즘적 전환이 확장된 판단 개념뿐만 아니라(Zerilli, 2005), 확장된 효율성과 합리성 개념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보다 페미니스트들은 여성학방법론과 페미니스트 정치의 실천적 전환을 통해 코넨리가 경고했던 불필요할 정도로 협소한 이론들의 인위적 구속에서 빠져나게 되는 위험을 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근대적 기획에서 개혁은 먼저 형식적 실천인 제도개혁에 초점을 맞춘 후 그에 걸맞은 새로운 비형식적 실천들을 생성, 재편함으로써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전략을 취해왔다. 이러한 근대적 개혁방식은 급격한 사회 재편의 충격을 감내할만한 가치가 있는 거대한 불의를 제거할 때 적합한 것이지만 그 형식적 실천의 변화에 걸맞은 비형식적 실천들의 변화는 사실상 문화적 환경의 변화와 함께 오랜 시간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나 더 이상 급격한 사회 재편이 필요하지 않은 후기 근대적 상황에서는 비형식적 실천들의 변화가 [즉 사회적 규범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전략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회적 작동 기제에 대한 섬세한 이해가 중요해진다. 나아가 이런 상황에서는 자유, 정의, 합리성과 같은 다양한 정치적 개념들을 좀 더 섬세하고 정교한 형태로 확장할 필요가 있게 된다. 실천이론과 아고니즘 정치는 이러한 작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

근대적 기획에서의 정치 전략은 특정한 정치적 불평등을 포착한 후 그것을 해소하는데 적절한 가이드 역할을 할 소수의 정치적 개념들을 선택하고 그 개념들이 함의하는 바를 최대한 추론한 다음 그로부터 성찰적 평

형 즉 상호 무모순적인 체계를 끌어내는 작업이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은 근대적 기획을 추구하는 자들이 신봉하듯이 그 정치적 개념들의 본질적 의미를 객관적인 기준과 논리적 절차에 따라 도출하는 작업이 아니다. 이 작업은 그 개념들로부터 추론된 구체적인 정치적 전략들이 적절한 것인지 [즉 구성원들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사회적 목표에 부합하는지] 취사선택하는 과정을 거쳐 그 의미가 구체화되는 과정인 동시에 그 사회적 목표 자체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하다면 수정하는 과정이다. 즉 이 작업은 정치적 전략의 적응적 선택과 사회적 목표의 적응적 조정을 이루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일 뿐인 것이다.

근대적 정치 전략은 채택된 정치적 개념들의 의미에 대한 확고한 사회적 동의를 주어진 때 특히 효율성을 발휘하게 되는데 근대적 기획이 성공적으로 작동했던 사회적 상황이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회 개혁의 방향에 대한 간결하고 객관적인 기준 역할을 할 수 있는 확고한 정치적 개념들을 승인해줄 그러한 정체성의 정치에 대한 향수가 여전히 지속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후기 근대의 다양한 정치적 환경에서는 정치 전략이 좀 더 유연하고 포괄적인 방식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예컨대 근대적 기획의 개선책으로 제시되는 속의 정치나 공적 이성의 정치가 사회구성원들이 공동의 삶의 형식(form of life)을 이미 공유하고 있을 때만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Schaap, 2006: 264) 여전히 불필요하게 정치적 선택의 공간을 축소시킨다는 코널리, 무페, 호니그, 제를리 등의 비판에 동의한다. 필자는 이들의 다양한 비판과 이질적인 이론적 특징들을 실천이론의 관점에서 하나의 통일된 정치적 행위이론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이 일반화된 정치 전략을 1절에서 밝혔듯이 아고니즘 정치라고 부른다.

필자는 하버마스의 공적 공간이나 롤즈의 공적 이성과 같은 속의 정치적 개념들은 근대의 계몽적 기획에 대한 미련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러한

개념들에 대한 집착은 인식론에서 재현론이 갖고 있는 끈질긴 생명력에 비견되는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아고니즘 정치적 대안은 재현론에 대한 철학적 실용주의의 대안처럼 정치적 실천에 실천이론을 일관되게 적용시키는 것이다. 즉, 정치적 행위를 선택하는데 있어 근대적 기획에서의 자유, 정의, 인권과 같은 정치적 개념들이나 속의 정치가 상징하는 공적 이성 같은 합리성 개념은 분명히 중요하고 또 적절한 출발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이유가 논리적 추론이라는 객관적 방식을 통해 그 개념들의 분명한 정치적 의미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다.

정치적 개념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의 순간은 그 개념적 도구들을 통해 다다른 정치적 결론이 구성원들이 상상한 바람직한 사회적 변화의 방향과 일치하는가를 판단하는 순간에 있다. 이 판단은 근대적 기획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그 정치적 결론을 수용하는 것으로 귀결되었지만, 후기 근대에 들어와서는 오히려 이 판단을 통해 개념적 도구 역할을 했던 정치적 개념과 목표 자체를 개정하려는 시도가 점차 빈번해지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개정의 시도가 실제로 재조정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늘어날수록 정치적 개념들의 개념적 도구 역할의 당위성은 약화되고 그 대신 더 다양한 정치적 이슈나 주장들, 심지어 근대적 기획에서 비웃음의 대상이었던 것들이 그 자리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근대적 기획의 경우 초기에는 계급 불평등, 인종 불평등, 성 불평등 (그리고 최근에는 종 불평등 (species inequality))과 같은 정치적 이슈들이 이런 비웃음의 대상이었고 그 결과로 누적된 사회적 불만과 비효율성이 혁명적 방식을 통해 해소될 수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아고니즘 정치는 사회적 혁명의 이러한 급진적 방식을 점진적이고 미시적인 방식으로 전환하여 사회변혁의 방식을 확장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아고니즘 정치적 전략은 실용주의적 정치 전략이나 푸코의

권력개념에 가해지던 비판처럼 기존의 억압적 권력체제에 대한 비판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그 권력체제를 유지시키는데 기여하는 논리를 제공한다. 이는 비판에 직면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오해에서 기인한다. 3절에서 핵심이론과 거시적 사회이론이 서로 다른 층위를 설명하는 이론임을 밝혔듯이 실천이론과 그 정치적 구현인 아고니즘 정치는 거시적 사회이론과 그 정치적 구현인 정체성의 정치와 경합하는 전략이 아니며, 다양한 거시이론들과 그 정치적 전략들을 구성하기 위한 출발점 역할을 하는 전략이다. 특히 아고니즘 정치의 목적은 다양한 사회적 지형에 각기 적합한 정치적 전략을 구성하고 후기 근대에 붓물처럼 터져 나오는 다양한 소수자 집단들의 부당한 차별에 대한 항의를 최대한 효율적인 방식으로 대처해나갈 수 있는 체계적인 관점을 제공하는데 있다. 이 과정에서 정체성의 정치는 구성원 대다수에 의해 차별의 부당성이 뚜렷하게 인지된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아고니즘 정치의 극단적 사례로 포함되게 된다. 즉, 아고니즘 정치는 정체성의 정치를 포함한 더 다양한 정치 전략들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결정하는데 있어 당위적인 정치적 개념들만을 기준으로 삼는 대신 구성원 각자가 상상하고 파악한 사회적 목표 전반으로 그 기준을 확장한다. 이러한 아고니즘 정치는 정치적 전략의 공간을 확장시키지만 그 확장은 정치적 저항의 강렬함을 희생한 대가로 얻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결국 한 사회에서 정치적 전략의 확장성과 결집력이라는 이 두 가지 상충되는 요구 간에 최적의 절충점을 찾는 문제와 그렇게 찾은 절충점의 효율성 정도는 구성원들이 도달한 규범적 판단능력의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 5. 맺으면서

지금까지 필자는 실천이론의 이론적 구조를 자세히 분석한 후, 여성학의 실천적 전환이 가지는 함의와 함께 이러한 전환이 여성학방법론에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필자는 아고니즘 정치가 실천이론의 정치적 구현으로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을 실천이론의 틀 속에서 강조했다. 아고니즘 정치에 대한 논의에서 드러나듯이 실천이론은 사회변혁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전략의 범위를 근대의 진보/보수와 같은 단순한 이분법적 분류에서 벗어나 사회적 실천의 효율성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연속적인 스펙트럼을 가지는 전략들로 확장시킨다. 즉, 실천이론은 한 사회의 문화와 사회구조를 결정하는 다양한 사회적 실천들 중에서 어떤 실천들이 비효율적인가에 따라 [달리 말하면 그 실천들이 얼마나 비정상적이거나 불평등하거나 또는 정의롭지 못한가에 따라] 그에 걸맞은 적절한 정치적 전략을 제시하려 한다. 특히 후기 근대적 풍경에 익숙해있는 서구 선진국가나 동아시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오랜 정치적 투쟁을 통해 성숙해진 대다수 시민들이 동의하고 있는 분명한 불평등들은 이미 대부분 포착되어 해결되었거나 점진적 해결이 예정되어 있는 반면 점점 더 다양하고 세밀한 형태의 정치적 억압이나 불평등들이 새롭게 포착되고 있고, 그에 대한 저항이나 항의가 시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경합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김영옥, 2009). 아고니즘 정치는 바로 이러한 상황이 요구하고 있는 유연하고 다양한 정치적 전략과 사회적 대응 방식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지난 이십년간의 급격한 신자유주의적 사회재편으로 효율적인 사회적 실천을 형성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저출산과 고령화와 같은 심각한 인구학적 문제에 직면하게 된 이 시대 페미니스트 정치의 효율

적 전략 모색에 실천이론과 아고니즘 정치가 체계적인 해법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특히 한국의 여성운동이 지난 수십 년간 이루어낸 성과에 기반한 젠더 평등을 개인의 규범적 판단 기준의 일부로 자리 잡게 하고 그렇게 확장된 사회적 실천을 더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삶의 공간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려면, 규범적 판단과 그것이 결정하는 사회적 실천의 효율성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각 개인의 삶의 기술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규범적 판단, 사회적 실천, 그리고 정치적 실천에 대한 구체적 이론이 먼저 완성되어야 하는데 필자는 이 글에서 제시한 실천이론이 이를 향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 참고문헌

- 김영옥(2009), “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촛불집회와 여성의 정치적 주체성”, 『아시아여성연구』, 제48권 2호, 7-34쪽.
- 바우만, 지그문트(2009), 『액체근대』, 이일수 옮김, 서울: 강, Bauman, Z.(2000), *Liquid Modernity*, Cambridge: Polity Press.
- 배은경(2016a), “청년 세대’ 담론의 젠더화를 위한 시론: 남성성 개념을 중심으로”, 『젠더와 문화』, 제8권 1호, 7-41쪽.
- \_\_\_\_\_(2016b), “젠더 관점과 여성정책 패러다임: 해방 이후 한국 여성정책의 역사에 대한 이론적 검토”, 『한국여성학』, 제32권 1호, 1-45쪽.
- 신상숙(2012), “신자유주의 시대의 젠더-거버넌스: 국가기구의 제도적 선택성과 여성운동”, 『페미니즘연구』, 제11권 2호, 153-197쪽.
- 임옥희(2011), “신자유주의 시대와 젠더 무의식”, 『젠더와 문화』, 제4권 2호, 37-70쪽.
- 제를리, 린다 M. G.(2016), “자유 의 정치적 실천으로서 페미니즘”, 조주현 옮김, 『젠더와 문화』, 제9권 2호, 7-26쪽.
- 조주현(2010), “실천이론으로 본 비판사회학과 페미니스트 정치학의 문제”, 『경제와 사회』, 제88호, 68-93쪽.
- \_\_\_\_\_(2016), “과학적 실천이론과 페미니스트 과학학의 접점: 캐런 바라드의 경우”, 『한국여성철학』, 제25호, 65-104쪽.
- 조한혜정 외(2016), 『노오력의 배신: 청년을 거부하는 국가 사회를 거부하는 청년』, 파주: 창비.
- 쿤, 토마스(2013), 『과학혁명의 구조』, 김명자·홍성욱 옮김, 서울: 까치글방, Kuhn, T.(1996),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3<sup>rd</sup> Edi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홍찬숙(2015), 『개인화: 해방과 위협의 양면성』,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Alcoff, L.(2000), "Who's Afraid of Identity Politics?", in *Reclaiming Identity: Realist Theory and the Predicament of Postmodernism*, ed. P. Moyaand and M. Hames-Garci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312-344.
- Alexander, J. C.(ed.)(1987), *The Micro-Macro Link*,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Allen, A.(2007), "Feminism and the Subject of Politics", in *New Waves in Political Philosophy*, ed. B. de Bruin and C. Zurn, New York: Palgrave Macmillan, pp. 1-18.
- Archer, M. S.(1996), *Culture and Agency: The Place of Culture in Social Theory*, Revised Edi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eck, U. and E. Beck-Gernsheim(2002), *Individualization: Institutionalized Individualism and Its Social and Political Consequences*, London: Sage.
- Brandom, R.(1994), *Making it Explicit: Reasoning, Representing, and Discursive Commitmen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_\_\_\_\_ (2002), *Tales of the Mighty Dead: Historical Essays in the Metaphysics of Intentionalit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_\_\_\_\_ (2011), *Perspectives on Pragmatism: Classical, Recent, and Contemporar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_\_\_\_\_ (2013), "Reason, Genealogy, and the Hermeneutics of Magnanimity", Paper presented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Hawison Lectures in Philosophy(2013.03.13).
- Cartwright, N.(1999), *The Dappled World: A Study of the Boundaries of Scien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nnolly, W.(2002), "Confessing Identity\Belonging to Difference", in *Identity\Difference: Democratic Negotiations of Political Paradox*,

-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pp. xiii-xxx.
- Dreyfus, H. L.(1992), "Part III. Alternatives to the Traditional Assumptions", in *What Computers Still Can't Do: A Critique of Artificial Reason*, Cambridge: The MIT Press, pp. 231-284.
- Folbre, N.(1993), "Macro, Micro, Choice, and Structure", in *Theory on Gender/Feminism on Theory*, ed. P. England, New York: Aldine Publishers, pp. 323-330.
- Gill, R. and C. Scharff(eds.)(2011), *New Femininities: Postfeminism, Neoliberalism and Subjectivity*,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Gintis, H.(2007), "A Framework for the Unification of the Behavioral Sciences",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30, pp. 1-61.
- \_\_\_\_\_ (2015), "Modeling Homo Socialis: A Reply to Critics", *Review of Behavioral Economics*, 2(1-2), Special Issue on Homo Socialis, pp. 211-237.
- \_\_\_\_\_ and D. Helbing(eds.)(2015), *Review of Behavioral Economics*, 2(1-2), Special Issue on Homo Socialis, pp. 61-210.
- Heritage, J.(1984), *Garfinkel and Ethnomethodology*, New York: Polity Press.
- Honig, B.(2009), *Emergency Politics: Paradox, Law, Democracy*,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norr-Cetina, K. and A. V. Cicourel(eds.)(1981), *Advances in Social Theory and Methodology: Toward an Integration of Micro- and Macro-Sociologies*, New York: Routledge.
- Latour, B.(2005), *Reassembling the Social: An Introduction to Actor-Network-Theo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acGilvray, E.(2004), *Reconstructing Public Reas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Menand, L.(2001), *The Metaphysical Club: A Story of Ideas in America*,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 Misak, C.(2000), *Truth, Politics, Morality: Pragmatism and Deliberation*. New York: Routledge.
- Mitchell, M.(2009), *Complexity: A Guided Tou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ouffe, C.(2005), *On the Political*, New York: Routledge.
- Rouse. J.(2007), "Practice Theory", in *Handbook of the Philosophy of Science*, Vol. 15: Philosophy of Anthropology and Sociology, Elsevier, pp. 630-681.
- Schaap, A.(2006), "Agonism in Divided Societies", *Philosophy and Social Criticism*, 32(2), pp. 255-277.
- Tomasello, M.(2014), *A Natural History of Human Thinking*,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Turner, S.(1994a), "Practices and their Conceptual Kin", in *The Social Theory of Practices*, Cambridge: Polity Press, pp. 1-13.
- \_\_\_\_\_ (1994b), "Practices as Causes", in *The Social Theory of Practices*, Cambridge: Polity Press, pp. 14-27.
- Zerilli, L.(2005), *Feminism and the Abyss of Freedom*,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Abstract〉

## Social Practices as Symbolic Complex Adaptive Systems: The Implications for Women's Studies Methodology

**CHO, Joo-hyun\***

This paper discusses the implications of practice theory of social practice as symbolic complex adaptation system in feminist methodology and feminist politics. I start by introducing practice theory, explaining social practices as a set of stable and evolving patterns of practices in a community maintained by intersubjective normative judgments performed by its agents on their acts and judgmental criteria. The three main components comprising this version of practice theory, called the theory of symbolic complex adaptive systems, are identified as social practice theory, philosophical pragmatism influenced by the tradition of German idealism and phenomenology and further modified by the recent developments in cognitive sciences and evolutionary psychology, and finally theories of complex adaptive systems. Next I analyze the implications of the practice turn I am advocating on the problem of and criticisms on adopting feminist theories developed under western influences. I claim that the practice turn of feminist methodology will be the best prescription against such suspicion. Finally I advocate agonistic politics as feminist political strategies to supplant the gender politics that has been so effective during recent decades.

**Key words:** neoliberalization, feminist methodology, feminist politics, practice theory, agonistic politics

---

\* Full Professor, Department of Women's Studies, Keimyung University